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온 시간,

민간 법과학 감정기관의 표상을 제시하다

이희일 국제법과학감정원 원장 | 문서감정연구소장 | 국제감식협회(IAI) 前 한국본부장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속 유명 대사다. 증거만큼 확실한 진실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대사처럼, 갈수록 범죄의 수적 증가와 함께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법과학’ 분야다. 국내 법과학 분야의 과학화 · 전문화에 앞장서며 민간 법과학 감정기관의 표상을 제시해 온 이희일 국제법과학감정원 원장을 만나 보이지 않는 진실과 사투해 온 30년 시간을 마주했다.

취재/글_ **오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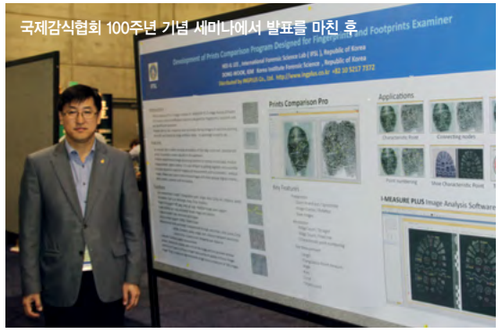
베테랑 법과학(문서 감정) 전문가가 되기까지

이희일 원장이 이끄는 국제법과학감정원은 법과학적 증거물의 감정 및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며, 지난 10여 년간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감정 결과를 도출해온 대표적인 민간 법과학 감정기관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곳의 출발은 이희일 원장이 감정 분야에 입문하게 된 시점부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는 이십대 중반, 우연히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담당자를 선발한다는 공문을 보고 지원한 것을 계기로, 20년 동안이나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전문 감정사로서의 역량을 다져온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원장이 감정 분야에 뛰어들었던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과학수사’라는 것이 자리 잡기도 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가 쌓아온 전문성에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감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나 인식이 미비한 현실에서 그는 거의 독학으로, 현장을 부딪쳐가며 역량을 쌓아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는 훗날 그가 국제법과학감정원을 세워 대중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건 ·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국내 유일 민간 법과학 종합감정기관, 국제법과학감정원

국제법과학감정원이 여러 민간 법과학 감정기관들 사이에서도 유독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민간 법과학 감정기관들이 특정 분야만을 단편적으로 전문화하는 것과 달리, 국제법과학감정원은 민간 법과학 분야에서 유일무이하게 종합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은 이 원장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경험을 쌓았던 지문 · 필적 · 인영 등의 문서 감정 분야를 비롯하여 거짓말탐지 검사, 사진 및 영상 감정, 디지털 매체 사용과 관련한 증거수집 감식법인 디지털포렌식 등에 이르기까지 법과학 감정 분야 전반에 걸친 영역을 다루고 있고, 관련 국가기관에서 오래 활약해온 전문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업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은 자신이 가진 증거물이 어떤 측면에서 효력을 지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원스톱으로 법과학 분야를 컨설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의뢰인에게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감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감식협회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를 마친 후

국제감식협회 회장과 함께 (2015년)

이렇듯 국제법과학감정원이 민간 법과학 종합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법과학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도 늘어나, 최근엔 법적 사건 · 사고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닌, 일상 속 여러 인간관계의 신뢰회복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꾸준한 국제 교류와 연구 개발로 한국 법과학의 진일보 이뤄

민간 법과학 감정기관 시장에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내며, 어느덧 감정인생 30년을 훌쩍 넘긴 이희일 원장. 그래서일까. 그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법과학 감정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난 것은 반갑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이 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막연한 호기심만 품고 있기보다 지식적 수준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재풀이 좁기 때문에 관련 학문의 공부에 매진해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사가 되고 나서의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원장은 "의뢰인과의 신뢰가 중요한 감정 업무에서 감정사의 자질은 신뢰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법과학 전문가는 진실을 밝히려는 '정직'한 자세와 최선을 다해 올바른 감정 결과를 도출하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을 선제 예측 해보기도 하지만, 범죄란 사실상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이라 항상 감정을 앞서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전문가라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죠. 이때 여러 학문을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각기 다른 패턴의 감정 의뢰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고요."

이희일 원장은 스스로 늘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꾸준히 연구하며 새로운 감정 · 감식 기법 개발에도 많은 성과를 냈던 그는 최근엔 문서 위변조 시 도장을 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국제감식협회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 세계 감정인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감식협회 한국본부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법과학의 세계화에 기여했고, 최근엔 미국사기조사관협회(NAFI)에도 가입해 점점 지능화되고 빈번해지는 사기사건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률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더욱 중요해질 국제 교류 활동에도 각별한 열정을 쏟아왔다. 그래서인지 이 원장의 국내 감정 환경 개선을 향한 바람은 더욱 간절하다. 그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법과학 체험 상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범죄현장 대처 능력을 보완하고, 전문가들의 연구 및 발표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좋아서 하는 일, 그래서 해야 할 일

이희일 원장은 법과학 전문가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결국 즐거움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기술로 보이지 않던 진실의 실체를 밝혀내고 사건을 해결해 의뢰인의 고충을 덜어주었을 때의 보람이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과학 감정은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 도출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줄 아는 발상의 전환과 사고력, 추리력 등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면이 참 즐거워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탓인지 원리를 찾아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삶의 이치가 묻어나는 이 일이 저에겐 천직인 것 같아요."

덕분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감정을 해야 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1년 그가 주도했던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관련 해적수사 현장출장 감정이 그것인데, 당시 이 원장은 해적들의 소행 입증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까지 받으며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온 이 원장은 '미아찾기감식지원' 방법을 도입, 장기 미아의 신원 및 소재지를 확인하는 감정을 통해 단 한 명의 미아라도 찾길 바라는 희망을 사회에 전하고 있다. 이런 남다른 활약 끝에 처음 법과학 감정 분야에 입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일을 한직(閑職)으로 여기던 주변의 많은 시선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는 이제 누구라도 인정하는 감정 전문가로 각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희일 원장의 목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앞으로 감정 영역을 좀 더 확장해 국제법과학감정원이 명실공히 민간 법과학 감정 분야의 최고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필적감정을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리란 포부를 전했다.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까지 알 수 있다고 알려진 필적학 연구를 통해 감정 전문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그마한 역할까지 하고 싶다는 게 그의 최종 꿈이다.

2014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 수상

미국 사기조사관협회(NAFI)정회원증

작은 것일지라도, 그에겐 수많은 사건, 사고의 진실을 찾아낼 단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에 오로지 감정에만 매달려온 시간들. 좋아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찾아주는 이정표가 될수록 그의 사명감도 더욱 깊어져 왔다. 바로 그것이 신뢰로 가득한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그의 끝나지 않은 한 걸음이 기대되는 이유다.

Profile

- 국제법과학감정원장(법원 등재 문서감정사)
-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수사과학석사) 졸업
- (美)AAIS 필적 및 지문감정 등 법과학분야 전문교육과정 수료
-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민간조사최고위과정) 외래교수
- 미국 사기조사관협회(NAFI) Active Member
- IAI 종신정회원 및 2015-2016 International Aspects Committee Membership Asia 대표
- 인영/지문감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2015, IAI 국제 세미나 Poster발표)
- VSC-4305를 이용한문서감정사례연구 (문서 위변조 감정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 최신 잠재지문 현출법(ID TECH사, 2004)
-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표창
- 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소말리아 해적수사지원유공)
-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 수상 (2014대한국민대상위원회/대한국민운동본부)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감사패 등 다수